

### 목서

## 공정함에 대해



위인전을 읽다보면 그들의 남다른 구석을 발견하게 된다. 정글의 성자로 불리던 슈바이처 박사는 어릴 때부터 몸도 크고 힘이 장했던 모양이다. 친구들과의 힘겨루기에서 진 일이 없거니와 어느 날 이웃 골목대장과 한판 승부에서도 이겼다. 그러나 겨루기에서 진 상대편은 "내가 가진 것은 너처럼 매일 맛있는 수프를 먹을 수 없어서"라고 불만스럽게 말했다.

수프를 언제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소년과 그럴 수 없는 소년의 불결이 공정할 수 있을까. 슈바이처는 여기서 공정함과 불공정함에 생각이 미쳤고 그 후 스스로 공정함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평생을 바친 원시 아프리카에서의 의료 활동 역시 '공정함'에 대한 성찰의 결과였을 것이다.

'공정함'이란 약육강식의 정글법칙과는 다른, 동물보다 한 차원 높고 자부하는 인간의 정신적 진화가 가져 온 단 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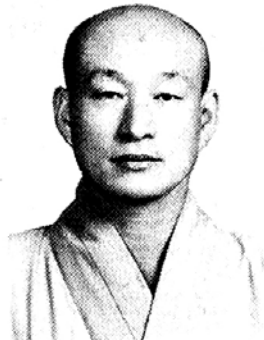
한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어를 우리는 '키워드'라 부른다. 부정 부패가 우리를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요즘, '공정함'이 이시대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의 중요함은 이미 드러나 있어 한국 사회에서도 정부기관, 아니면 그 주변단체에 '공정'이란 간판을 단 곳이 있다. 기업경쟁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공정함'을 감시하는 일들을 이들이 하러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공정무역이나 공정 배분이니 하면서 '공정함'의 문제를 앞세우고 있다. 어쩌면 밝은 미래세계를 여는 키워드로 인류는 이미 '공정함'을 택했는지 모른다.

'공정함'이 흔히 키워드가 갖는 주술적이고 자유정신을 속박하는 행태만 부리지 않는다면 미래를 푸는 단어로 그만한 것도 없다 싶다.

지난 월드컵 축구대회에서도 우리는 '공정함'에 대해 배웠다. 페어플레이를 앞세우는 스포츠 경기에서 공정함이 어떻게 드러나며 어떻게 문제되는 지를 보았다. 그 '공정함'을 어떻게 우리 사회 안에 잘 실현시켜 나가느냐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김정자(언론인·본지 논설위원)



거의 한달 간 온 나라가 월드컵 축구 열기로 가득했다. 경기장에서만 열기를 뽐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마치 축구를 위해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듯 했다. 월드컵 역사상 단 한 번도 본선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한국 축구가 16강, 8강, 4강까지 오르는 기적을 연출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한국축구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를 대표하여 세계 열강 속에서 당당히 4강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지도자들 영입할 수 있었고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과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축구와 선(禪)의 세계. 이 둘은, 최대한 집중해야 하는 것에서 닮은 꼴도 발견되지만, 사실 지향하는 바나 성취 후의 결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동적(動的인) 것의 극치인 축구와 정적(靜的인) 것에서 출발하는 선의 세계는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

주지하다시피 축구는 영국의 산업 노동자들 사회에서 생겨난 운동이다. 산업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육체적 피로를 풀고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것이 축구였다.

축구는 순수한 스포츠로 시작했다. 진정한 스포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외에 즐기는 놀이에 지나지 않는 운동이다. 그러나 축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국경과 인종, 빈부와 성별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축구가 16강에서 8강으로, 다시 4강으로 오르면 세계의 강호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우승하는 모습을 보는 동안 묘한 심정이 들었다. 마치 내가 경기장 안에 들어가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였다.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그라운드를 질주하는 선수들의 정신세계는 완벽한 집중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들이 그 순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정신의 경계는 무심(無心)이

## 축구와 禪

### 설곡스님 특별기고

라 해도 좋다. 공을 찬다는 그 행위와 하나가 되어 온전한 몰입만 남아있는 무심에서는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겨달라고 주문하며 국민들은 열광했지만, 후 그 너머에는 몰입의 무아지경이 주는 아름다움을 즐긴 것은 아닐까. 일념(一念)의 상태에서 경기에 몰두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훌륭했다. 그 모습은 어쩌면 선(禪) 수행자가 마

을 생각할 뿐 다른 생각, 즉 분별심이나 잡념, 사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선으로 가는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신심명>에서도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취사선택하는 분별심이 그것을 어렵게 할 뿐이다"고 했다.

선을 수련해 보지 않은 사람이 꽃을 볼 때 사람들은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별

지 않는 마음을 의미한다. 사실, 사물을 볼 때 무심하지 않으면 사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이다. 만약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견해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가 아니다. 보는 자의 생각이 있을 뿐이다.

만약 선을 수련한 사람이 축구를 하면 경기와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경기의 흐름에서 경기와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훌륭한 축구 선수는 마치 선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선사(禪師)와 같다고 볼 수도 있

선수가 뒤엎힌 상대 골문 앞에서 안정한 선수가 머리로 공을 맞출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야말로 무념무상의 상태였을 것이다. 동료선수의 발에서 날아오는 볼의 공중거류 시간은 1초도 되지 않는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선지식과의 범거량에서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주저없이 답을 던져야 하는 선사의 순간적 지혜와 같을지도 모른다. 망설임이나 책임회피는 있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 그 순간에는 오로지 혼신을 다한 최선만이 있을 뿐이다.

한국과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박지성 선수의 한 골 역시 그렇게 순간적으로 나왔다. 찬스의 순간, 전광석화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을 날린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문수의 예리한 지혜감이 섬뜩 빛나는 것과도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 동작은 무한한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보는 관중은 환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을 성공시킨 순간의 아름다움은 비록 한 동작의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성공시킨 동료들의 수많은 동작들의 도움이 그 한 동작에 숨어있다. 그것은 인연의 도리와 같다. 인연의 한 단면은 목전(目前)의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나타내게 하는 수많은 조건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다.

이번 월드컵은 한국인과 전체 아시아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마음을 모아 어떤 일도 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본래 축구는 순수한 스포츠 정신으로 시작된 운동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한 운동으로서의 목적보다 승리에만 목적을 둔 나머지 순수한 스포츠 정신은 사라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만 하는, 집착과 욕망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 아쉽다.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 뒤에는 돈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다. 스타 선수들의 몸값은 천문학적 숫자가 되어버렸다. 돈과 명예를 거머쥐기 위해서 반칙과 눈속임, 거친 욕설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집착이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그러한 집착이 오늘날의 축구를 순수한 스포츠 정신과는 거리가 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시합에는 어차피 승패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경기를 하면 이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이익의 집착에만 빠져 있다면 경기에는 이겨도 진정한 승리는 아니다.

오늘 아침 산책길에 <금강경>의 가르침이 내 가슴에 조용하게 메아리친다.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 없는 가운데 오로지 최선을 다할 뿐이다.

<구미명사주지>



◇일념으로 경기에 몰두하는 선수는 진리와 하나가 되려고 마음을 모아 혼신을 다해 정진하는 선수행자의 모습과 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진은 6월18일 월드컵 16강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이탈리아 선수를 사이에서 공을 쫓는 모습. 사진제공=조선일보

## 박지성 번개슛, 문수 '지혜 검' 번뜩이듯 안정환선수 헤딩골 순간은 무념무상 상태

### 어시스트-인연의 도리, 잇단 반칙·눈속임-집착

음을 하나로 모아서 영원한 진리와 하나가 되려고 혼신을 다해 정진하는 모습과도 상통하는 것처럼 보였다.

참선은 삼매를 지향하여 수련한다. 삼매란 한가지 일에 몰두하여 다른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날 겨를이 없는 일념의 상태를 말한다. 선의 세계에서 무심삼매(無心三昧)라고 말할 때, 무심이란 전혀 아무런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가지만

한다. 이 꽃은 예쁘다 아니다, 이 색은 좋다, 나쁘다 하며 자신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수행자가 삼매에서 꽃을 보면 꽃만 있고 사람은 없다. 즉 보는 사람이 꽃이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수행자의 마음이 무심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무심이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어떤 분별이나 차별심을 일으키

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 불리는 브라질의 호나우두가 보여 준 경기 모습은 상징적이다. 결정적인 순간 그는 공이 오는 곳에 존재할 줄 안다. 즉 경기의 흐름을 가장 현명하게 읽고 있는 선수중 하나이다. 그것은 그와 축구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증거다.

이탈리아와의 16강전 경기때, 종료 몇 분을 남겨두고 상대 선수와 우리

### 불사의 생각

#### 직업선택



### "불교 큰 영향 안 준다" 43.3%

(30.7%)은 주는 편이다, 28명(22.0%)은 상당히 준다, 5명(4.0%)은 전혀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직업선택에 있어 불교의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1명(55.9%)이 받지 않았다, 31명(24.4%)이 조금 받았다, 25명(19.7%)이 많이 받았다고 답변해 불교가 직업선택에 다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연태 기자

## 공 고

거룩하신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본(사)군불교진흥회에서 시작하여 금년으로 제 6 회를 맞이한 "군정병복지 위문품보내기" 운동이 사부대중여러분들의 원력과 신심에 힘입어 원만히 회향하였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기2546(2002년) 부처님오신날 위문품 보내기 운동"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입부		지출부	
		항 목	금 액
강화사업연합회 9,600,000	영도건설 3,300,000	◆ 박스 (大·小박스)	7,000,000
조광피혁 2,800,000	지문스님 2,500,000	◆ 초코파이 외(과자, 음료수)	27,102,000
무명인 2,000,000	진각종 2,000,000	◆ 소책자, 봉투 등	5,700,000
오현옥 1,660,000	원광사 1,500,000	◆ 합장주, 호신불	5,631,000
동국대불교대학원 총동문회 1,200,000	이우경 1,200,000	◆ 식대 및 작업비용 (스티커, 군인간식, 발송비)	1,715,228
이우경 1,200,000	자용스님 1,000,000	◆ 광고비	300,000
운월스님 1,000,000	국순려 1,000,000	◆ 결산안내인쇄 및 발송비	100,000
김명숙 1,000,000	법사종 1,000,000	◆ 잔액	1,939,772
석불사신도회 1,000,000			
(재)성라원이사장 · 재일조계종이사장			
석태연 외 152명 동참			
조계종 불족위원회 플라 8,910켄			
수국사 쌀 20kg 50포			
<b>총 계</b>	<b>₩ 49,488,000</b>		<b>₩ 49,488,000</b>

※ 예산관계상 광고에 소액동참자들을 게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참하신 분들께서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역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02-749-5135)

□ 부탁드립니다!  
명예회장 박상길, 명예부회장 이병문, 회장 석정각, 수석부회장 한자용, 이사 지문스님, 운월스님, 남윤스님, 이진호, 국순려, 김명숙, 기획이사 백승진, 감사 최우진, 류권홍, 사무국장 이희전 사무원 반아심, 방재상 등이 본 법인의 임직원입니다.  
본법인은 군부사 및 법회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임직원 이외에는 화주나 협조를 구하는 사례가 없는 바, 본 법인의 임직원을 사칭하는 경우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알려드립니다!  
본(사)군불교진흥회의 임시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이사회 제위께서는 동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불기 2546(2002년) 7월 8일(목) 12:00시  
\*장 소: 국방부 호국원광사내 (사)군불교진흥회 사무실  
\*안 건: "군정병복지 위문품 보내기" 결산보고 외 기타의 안건  
□ 감사합니다!  
저희(사)군불교진흥회는 군정병복지의 실행과 군부사님들의 보살핌을 지원하 는 순수 민간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군불교진흥회총장 석정각 합장  
\* 추가: 육군 12604개 해군 3810개 공군 780개를 65여곳 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 불교교양대학 및 불교교육단체 등록 안내공고

불교교양대학이 도시는 물론 산사까지 활발히 개설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바르게 알리고 신학생들에 도움되고 있으며, 한국불교 발전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20일 불교교양대학보호와 정보제공을 위한 불교교육단체 연합회를 성황리에 창립하고, 연합회 가입안내를 드리오니 많은 등록 있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02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 대 상 : 불교교양대학 및 기타 불교교육단체
- 목 적 : 1. 불교정보(교재,교수)제공  
2. 교재공동번역  
3. 교양대학간 협조지원사업  
4. 불교교육단체보호업무

※ 특 전 : 등록된 불교대학 졸업자는 불교교육능력평가를 통하여 연합회포교사 품수

■ 문 의 : 사무국 02-734-9595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공동대표 한정섭법사(한국불교통신대학장)  
정대은스님(해동불교대학장)  
김재일법사(동산불교대학장)